

착한 목자	천주교 싱가포르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fice Blk A3-7, 98 Hougang Avenue 8, S538791	주임신부: 박재우 사도 요한 사목회장: 최 수 사도 요한
------------------	---	------------------------------------

☏ 사제관: 6925-7873, 사무실: 6288-9771, 팩스: 6288-9551, <http://cafe.daum.net/kccsg>

주 일 미 사	주일: 오후 2시(대성전) 토요일(특전미사): 5시 30분 중고등부 · 청년 미사, 장소: 오디토리움 *매월 마지막 주는 가정 주일로 토요일 미사가 없습니다.	주일 학교(토) 예비 신자 교리 고 해 성 사	유초등부: 교리 오후 3시, 미사 4시 중고등부: 교리 오후 4시, 미사 5시 30분 주일 12시 30분, 수·목요일 오전 11시, 토요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전 후 고해실(A2-8) 주일: 미사 30분 전 성전 고해소.

연중 제33주일 ·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오늘은 연중 제33주일이며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만물의 시작이시고 마침이신 하느님께서 아드님의 살아 있는 성전에 온 인류를 모으십니다. 변하는 이 세상의 기쁨과 슬픔을 넘어 하느님 나라에 희망을 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 굳게 믿으며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아갑시다.

11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자살예방>

자살의 유혹을 받는 이들이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관심과 사랑을 찾고, 생명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위령 성월'은 세상을 떠난 모든 형제자매를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미사 전 <위령성월 기도> 바칩니다.

기쁨의 삼 꾸리아 월례회의

11월 16일(일) 미사 후 3시 15분, 장소는 소성당입니다.

빈첸시오회 성탄맞이 인도네시아 바탐 테레사 기숙원 방문

저희 빈첸시오회는 올해도 성탄을 맞이하여 12월 13일(토)에 인도네시아 바탐 테레사 기숙원을 방문합니다. 아이들에게 구디백 등을 선물하고 함께 성탄 장식과 신나는 게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난감과 초등아동의류(새 제품, 상태가 양호한 것) 등을 기증하실 분은 11월 30일까지 사무실이나 미사 후 빈첸시오회 부스에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성탄에 우리의 작은 나눔이 아이들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방문봉사에 직접 참여를 원하시거나 물품 기증/기부 관련 문의는 아래번호로 연락주세요.

* 문의 : 이영학 시몬(9619-6683), 정연재 엘리사벳(9826-6417)

중 · 고등부 교사 모집 안내

저희와 함께 학생들을 위해 즐겁게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토요일 5시반 미사 때 오시거나 아래 아이디로 키톡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세례 받은지 1년 이상 된 청년 (20세 이상)

* 문의 : 교감 임소현 레온시아 (카톡 아이디: shyim0128)

2026년 매일미사 신청 안내

매일미사 1년 구독, \$40입니다. 11/30(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주세요.

빈첸시오회 후원을 기다립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움 주신 후원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도움을 청하는 손을 뿌리치지 말고 도와줄 힘만 있으면 망설이지 말아라. (잠언 3:27)

* 문의 : 빈첸시오 회장 이영학 시몬(9619-6683)

* 후원 계좌 : PARK JAEWOO OCBC 543289292001

인터넷 교리 안내

예비자 교리 <http://school.catholic.or.kr/cte/roompass.asp>

견진 교리 <https://school.catholic.or.kr/3217e>

*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을 사제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테라노 대성전 통한축일(11월9일) 주일헌금 \$1,558.80

평신도 주일 2차헌금 \$1,495.70, ₩11,000.

교무금 내신 분 (11월 8일~11월 14일)

남궁경 그레고리오 7-12월, 김은진 마르티나 9-12월,

박원빈 베드로 11,12월, 유정선 에스더 11월,

이난주 크리스티나 4-26년 1월, 정연희 로사 9,10월.

■ 6세대 \$2,600.

◆교무금 감사헌금 입금 계좌 : DBS 113-008886-3 PARK JAEWOO

* 온라인 송금할 때 **입금자 이름을 꼭 기재**하거나 사무실에 알려 주십시오.

<10월 20일 교무금 계좌에 \$100 송금하신 분 연락주세요.>

사무실과 소성당 이용 시간

평일 : 화요일 오후 6시 ~ 9시,

수, 목, 금요일 오전 9시~오후 3시 (점심시간 : 12시~1시).

토요일 : 오후 1시 ~ 8시, 주일 : 12시 ~ 5시

*주소 변경이나 귀국할 때 사무실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참례자 수(지난 주)

8(토)		9(일)		평 일			
4:00	5:30	2:00	11(화)	12(수)	13(목)	14(금)	
59/74	47	115	18	29	29	21	

***통한 가족** : 박재성 노엘 · 서준미 바틸다 가정

*2025년 10월 신자현황

세대수 540세대 (8월보다 10세대 증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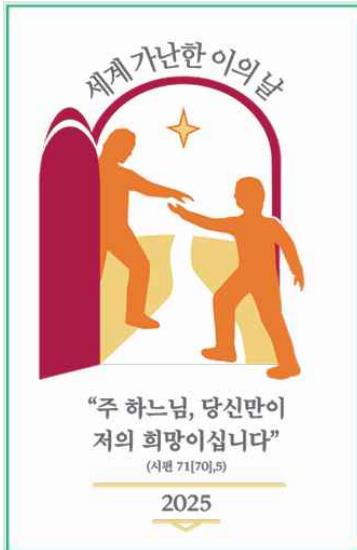
남: 585명 (8월보다 8명 증가), 여: 716명 (8월보다 15명증가)

저자씨

◆제1603호◆

Korean Catholic Community, 1259 Upper Serangoon Road, Singapore 534795 Tel: 6288-9771 Fax: 6288-9551

2025년 11월 16일(다해) 연중 제33주일 ·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제9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입당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노라. 나를 부르면 너희 기도를 들어 주고, 사로잡힌 너희를 모든 곳에서 데려오리라.

제1독서 말라 3,19-20ㄴ <너희에게 의로움의 태양이 떠오르리라.>

화답송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려 주님이 오신다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나팔 뿐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 소리쳐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강들은 손뼉 치고, 산들도 함께 환호하여라. ◎
-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신다. ◎

제2독서 2테살 3,7-12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Fine

-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복음 루카 21,5-19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영성체송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오늘의 성가 입당송: 48 봉헌: 41 · 219 성체: 151 · 158 파견: 436 (성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무너짐 속에 다시 피어나는 희망

최기홍 바르톨로메오 신부
김화 본당주임



11월의 중순, 전례력의 끝자락에 서 있는 지금, 잎이 떨어지는 길목에서 우리는 저마다의 한 해를 돌아봅니다. 누구는 “다사다난했다”고 말하고, 누구는 “그저 버틴 한 해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정말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네.”라며 웃음 섞인 한숨을 짓습니다.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을 바라보며 올해도 잘 버텼다고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마음 한편에는 묘한 허전함이 남습니다. 분명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삶의 성전은 여전히 단단한지 묻게 됩니다.

복음 속 제자들도 자신들의 성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스승님,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돌려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무너짐을 예고하시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지만, 예수님은 절망이 아닌 진짜 희망의 자리를 가리키고 계셨습니다. 곁으로는 단단해 보여도, 하느님 없이 세워진 성전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자존심과 욕심, 계산으로 쌓아 올린 것들은 결국 흔들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느님이 새로 세우시는 믿음의 돌이 놓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들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이 말씀은 오늘도 조용히 우리 마음에 속삭입니다. 삶이 흔들리고, 세상이 불안하며, 마음

이 지쳐갈 때에도 하느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어둠 속에서도 그분은 작은 불빛 하나를 꺼뜨리지 않으십니다. 무너짐의 자리에서 새희망을 세우시고, 끝처럼 보이는 순간에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의 언어가 막하고, 마음이 닫힐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길을 냅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을 때도, 하느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있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기도 중에 마음이 말라버린 듯해도, 말씀 한 구절이 다시 불씨가 되어 우리를 살립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논리보다 깊고, 그분의 언변은 사랑의 언어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단순히 기억 속 문장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숨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여기서 인내(?πομόνη?, 휴포모네)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신뢰하기에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결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하루를 버티는 끈질김이 아니라, 사랑을 놓지 않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멈춰 선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전례력으로 한 해의 끝자락, 세상은 겨울을 향하지만, 신앙은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비워질수록, 땅속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희망의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분께서 겨울을 지나 봄으로 이끄시듯, 우리의 삶도 그분 안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작입니다.



“주 하나님, 당신만이 저의 희망이십니다.” (시편 71[70],5)

▶ 담화원문보기

“주 하나님, 당신만이 저의 희망[이십니다]” (시편 71[70],5). 이는 극심한 환난에 짓눌린 무거운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입니다. 삶의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희망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는 하느님 사랑에 대한 굳건하고 분명한 확신으로 복돋워집니다. 희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로마 5,5 참조).

가장 큰 가난은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복음의 기쁨」 (Evangelii Gaudium)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이가 겪는 죄악의 차별은 영적 관심의 부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당수의 가난한 이들은 신앙에 특별히 열려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느님의 우정과 강복과 말씀, 성사 거행, 그리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여정을 끊임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200항).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자 희망의 비결입니다. 곧, 모든 지상 재화와 물질적 실재, 세속적 쾌락과 경제적 번영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행복을 가져다줄 수 없습니다. 부는 종종 우리를 기만할 뿐만 아니라 비극적인 가난, 무엇보다도 하느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하느님 없이 살아가려는 시도에서 비롯되는 가난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교회에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말과 지혜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접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거행하는 의미는, 우리 공동체들에게 우리의 모든 사목 활동의 중심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애덕 활동만이 아니라 교회가 기념하고 선포하는 메시지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모든 형태의 가난은 예외 없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효과적인 희망의 표징들을 보여 주라는 부릅니다.

이것이 이번 희년을 경축하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초대입니다. 이 은총의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성문(聖門)이 닫히고 나면 우리는 이 기도와 회심과 중언의 해를 지내며 받은 하느님의 선물들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동시에 다른 이들과도 나누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희년을 통하여, 오래된 것이든 새로운 것이든 온갖 형태의 가난을 척결하고 가난한 이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이들을 지원하고 도와줄 새로운 계획을 실행하려는 정책 개발이 촉진되기를 희망합니다. 노동, 교육, 주거, 보건은 무력 사용으로는 결코 이를 수 없는 안보의 조건입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감사를 드리며, 선의를 지닌 많은 이가 국제적 차원에서 날마다 펼치는 노력에도 감사드립니다.

근심하는 이의 위안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 우리 자신을 맡겨 드리고 그분과 함께 ‘사은 찬미가’ (Te Deum)를 부르며 희망의 노래를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바랐사오니 영원을 부르며 희망의 노래를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바랐사오니 영원토록 부끄러움 없으리이다” (In Te, Domine, speravi, non confundar in aeternum).

▶ 바티칸에서 제9회 14세 교황



■ 소공동체 모임 일정(11월17일 ~ 11월23일)

날짜	시간	구역/반	주소	이름
11/18(화)	10:30	1구역 1반	140 King's Rd #04-02, S268157	김효정 패트리샤
		1구역 3반	45 Normanton Park #20-03	장희선 베로니카
		1구역 4반	Cascadia Function Room	박미옥 엘리사벳
		2구역 4반	Valley park #07-05	강경희 젬마
		4구역 3반	Hillview Green Function Room	김미경 크리스티나
		5구역 1&3반	Ang Mo Kio central 3,Grandeur 8 function room	홍지수 베로니카
	11:00	2구역 2반	7 kepple bay view reflections	이영신 윤리안나
	18:00	2구역 1반	Interlace condo function room	서현승 크리스티나
11/20(목)	미사후	3구역 2반	성당 교리실	박윤성 첼리나
11/21(금)	11:00	3구역 1반	34 Dakota Crescent Dakota Residences	김종숙 루시아
	19:00	4구역 2반	Regent Heights condo	이세연 윤리아나